

사회복지시설 탐방 20 분도마을 원장 김은영

老年에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 제공

“무료노인요양원 포천분도마을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분도마을(원장 김은영)은 포천시 작작동 589번지에 600여평의 건물에 지어져 있으며, 1996년 장갑석씨와 이원석씨의 후원으로 2003년 7월 19일 기공식을 통해 태동했다.

분도마을은 지난해 10월19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현재 신고시설로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가 운영하고 있다.

분도마을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보살핌이 요구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여가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분도마을의 시작배경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했던 베네딕도 수녀회에서는 주로 청각언어 장애 시설에 관심을 갖고 서울의 예화학교와 안성의 성 요셉의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농이나 청각장애인에서 범위를 확대, 노인요양 분야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역량 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도마을의 시작이 좋았던 것 만은 아니다.

김 원장은 “분도마을의 개원은 현실적으로 포천지역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개원이전 지역사회의 수요조사와 여건 분석 등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도마을은 최근 몇 달 전까지 입소인원이 정원에 턱없이 부족하며, 시설 유지비 등 개원 이후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6월부터 포천시로부터 직원인건비와 기초대상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분도마을은 현재 시설장인 데레사 수녀를 비롯해 사무국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생활지도원 2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의 보조를 받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처음부터 넓은 건물에 실비입소를 원칙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정원의 30%까지만 실비입소가 가능하게 돼 입소할 수 있는 분이 넓어지게 사실”이



무료노인요양원 포천분도마을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원인 김은영 원장)

라며 “지나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시설은 노인 4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현재 남자 1명, 여자 7명으로 총 8명이 수용돼 있는데, 73세의 노인이 최연소이고 88세의 노인이 최고령으로 입소해 있다.

김 원장은 “입소 노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길은 여건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가장 적은 노인을 수용, 보다 많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며 시설운영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 장애인 시설보다 노인관련 복지시설의 지원이 미약함을 지적하며 이런 현실의 개선과 노인의 인격적 대

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도마을에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노인을 모시기 위해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입소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분도마을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이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 외상 등의 전문요양 대상자는 제외다.

또한 분도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설 전반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목욕봉사로 송우리 성당소속 2명의 봉사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발지압, 취미교실, 청소, 목욕 등 지속적으로 시설에 도움을 줄 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설이 위치한 지대에 장맛비에 땅이 파여 각종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분도마을은 최근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개원당시의 시행착오를 극복,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점을 감안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후원: 175-01-171370 (포천분도마을) 문의: 031-539-0500~1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리더의 역할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가을이 깊어 가는 무렵 북쪽에서 찬바람(朔風)을 타고 하늘 구만리를 날아온다고 하여 기러기를 ‘삭조(朔鳥)’, 서로 간에 신의가 깊다고 하여 ‘신조(信鳥)’, 큰기러기와 작은 기러기를 ‘홍안(鴻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이동을 할 때는 혼자서 하지를 않고 V자 형태로 항상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제일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리더인데 V자 형태로 날아오는 이유는 자기들의 날개 짓으로 만든 기류 때문에 모든 무리가 함께 상상의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리 70%나 더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관소리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받는 명창보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소리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리의 템포를 조절하는 고수의 역할을 더 중하게 여

기다. 리더란 앞에서 끌어야 할 때도 있지만 뒤에서 상황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다.

앞에서 이끌어 갈 때는 자기 희생과 봉사가 필수요소지만, 뒤에서 조절을 할 때는 박수와 환호쯤은 초월할 수 있는 무용의 마음과 함께 분위기 파악과 상황의 완급을 조절하는 지혜로움이 필수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혼자의 힘보다는 무리를 이루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무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자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지혜로움이 필수이다. 필자역력차 031-542-0032

13년간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전병호翁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이 큰 보람”

내촌초·중학교 재학생인 우수학생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난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온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온 전병호翁.

화제의 주인공 전병호(88, 사진)翁은 전남 담양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배움의 길을 접고 고향을 떠나 40여년전 포천에 정착을 하면서 안해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전翁은 내촌면 내리 남·여 노인정과 마을회관 건립에 지대한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 받은 것을 비롯해 이진호 군수시절 1일 명예군수 위촉,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또한 서울-외수리행 직행버스 정류장을 소화리에 개설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시간과 교통비 절약으로 주민들과 학생들로부터 마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전翁은 자신이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내촌초등학교에 5백1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내촌중학교에 6백만원의 장학금을 13년 동안 지금까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급해 왔다.

전翁은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언젠가는 꼭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평소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전翁은 비록 눈 6백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뜻을 밝히고, 자신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큰 보람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경기온천쌀 등 지역특산물 교류推進

기산1리와 웨르보 코리아(주) 1사 1촌 자매결연



일동면 기산1리와 웨르보 코리아(주)의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식이 지난 25일 기산리 덕고개에서 마련된 가운데 나윤수(좌) 이장과 윤수영 대표가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하고 있다.

일동면 기산1리(이장 나윤수)와 웨르보 코리아(주)대표 윤수영)간의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식이 지난 25일 기산리 덕고개에서 개최됐다.

농협중앙회가 기업과 농촌의 도농교류를 통한 상호지원과 협력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농촌사랑 1사 1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결연식은 기산1리 주민, 웨르보 코리아(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루어졌다.

이날 결연식은 경과보고와 웨르보 코리아(주) 윤수영 대표의 기념사, 기산1리 나윤수 이장의 답사, 내빈 축사, 자매결연증서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웨르보 코리아(주)의 윤수영 대표는 기념사에서 “도농교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자매결연은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을 갖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산1리 나윤수 이장은 답사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농산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최극의 현실을 볼 때, 이번 자매결연이 마을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로 마을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웨르보 코리아(주)는 일동면 출신인 윤수영 대표가 2001년 설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기업으로 국내유일의 유럽직수입 명품 골프 및 스포츠웨어인 웨르보 브랜드를 전국 유명백화점 및 골프장, 프로샵 등에 유통하는 업체로 연간 105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기산1리는 나윤수 이장을 중심으로 276세대 706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아곡, 덕고개, 샘밭, 관돌마을로 구성돼 있으며, 청계산자락에서 대대손손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기산1리와 웨르보 코리아(주)는 경기온천쌀 등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 교류, 주민고용창출 등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포천시 관내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은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혈액암 해정이 돕기 이웃주민 나섰다

산호아파트, 일일호프 통해 수익금 전달

포천시 신북면 산호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2일 단지내 아파트관리소 주차장에서 혈액암으로 도움을 손길 필요로 하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일일호프 모금 행사를 펼쳤다.

산호아파트 주민으로 102동 101호에 입주하고 있는 해정이의 아타까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해정이를 도움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일일호프행사를 통해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단지내 주민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까지 참여한 일일호프는 성황리에 마무리 됐으며, 모금된 금액은 288만7천730원으로 지난 26일 해정이에게 직접 전달됐다. 산호아파트임차인대표인 이재

완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8월 3일로 잡혀있는 해정의 수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정이가 앓고 있는 혈액암이 3천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드는 큰 병이니 만큼 독지가 등 지역사회에 호소했다.”

다행히 해정이는 동생과 골수가 일치해 수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정이를 돕기위한 어머니회의 일일호프와 신북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의 노력은 지난 분지 7월 10일자에 소개된 바 있으나, 3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해 지역 사회의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26일 산호아파트임차대표 이재완 회장이 일일호프로 모금된 성금을 해정이의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을 우리 전통가락과 함께”

화현면, 노인대상 전통문화예술교실 운영



포천시 화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남)는 지난 21일 관내노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현면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노인대상 전통문화예술교실을 개설했다.

포천시 화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남)는 지난 21일 관내노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현면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노인대상 전통문화예술교실’을 개설했다. 이날 행사는 노령인구가 증가하

며 노인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람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김영란 포천시립민속예술단장이 강사로 초빙돼 사물놀이, 민요 배우기, 우리춤 따라하기 등 각종 전통문화를 두시간여에 걸쳐 강의했다. 강사의 지도 하에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낸 노인들은 전통문화예술교실을 통해 생활의 큰 활력을 얻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화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관내 노인들을 초청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바르게살기영북면위원회 산정호수 정화 앞장

영북, 영중, 관인면 회원 50여명 참여



산정호수 정화활동에 참여한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 위원회 회원 50여명이 정화활동에 앞서 개최된 기념식에 이어 기념촬영을 했다.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 영북면(위원장 김진석), 영중면(안선재), 관인면(이원식) 위원회 회원 50여명은 포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막식 하루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산정호수 하동주차장에서 산정호수까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친절·질서·정결운동 나부터’라는 구호로 바르게살기운동 영북면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회원들의 정결운동 전담 및 홍보용 휴지 전달과 하동주차장에서 산정호수까지 이르는 산책로 정화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이병업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지회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포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맞아 바르게살기 각 면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라며 “비록 작은 힘이지만 국제적 행사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모범운전자회 제초기 메고 도로변 정화

노령화로 마을 정화 일손 없어 도움의 손길

포천시모범운전자회(회장 김재현)는 지난 20일 일동면 수입4리 38교 인근에서 도로포지관 정비 및 도로변 잡초제거활동을 펼쳤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활동은 포천시모범운전자회 소속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이루어졌다.

이번 도로변 정비활동은 마을의 청결활동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마을 진입로 및 도로변 정화

활동을 할 수 없는 수입4리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회장은 “관내 상당수의 마을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마을의 운영이 어려워 정도로 심각하다”며 “모범운전자회는 현재 간헐적으로 실시해온 방문 봉사활동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모범운전자회는 지난 20일 일동면 수입4리 도로변 포지관 정비와 잡초제거활동을 펼치는 등 수입4리 정화활동을 실시했다.